

사상체질과 A/B형 성격에 관한 연구

이 규 은* · 김 남 선* · 류 재 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동서를 막론하고 건강, 질병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전일론이 지배적이었다. 사체액설에 기반한 서양전통의학, 사대 부조설 위에 있는 인도의학, 주로 음양이론에 근거를 둔 한의학 등은 매우 공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데카르트 이후 이원론은 상대적으로 분석적인 특징을 지닌 현대의학을 탄생시켰고, 이후 현대의학 외에는 모두 비과학적이라고 경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이러한 확신은 흔들릴 수 있고 실제로 오늘날 많은 과학사자들은 동서양의 전통과학을 과학으로 인정하고 있다(Hwang, 1999). 그러므로 통합된 존재로서 대상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간호에 있어서도 건강,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재조명하고 검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고유의 분류학(typology)이라 할 수 있는 사상체질과 간호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체질은 개체의 형태적·기능적 특성으로서 질병의 발생과 치료방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체질구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 왔다(Park & Kim, 1986).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마가 사상의학의 이론을 제창하여 체질은 개개인의 장부대소기능(臟腑大小機能)의 특이성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체질적 특성은 생리·병리 상태 등은 물론 약에 대한 반응과 심리상태 및 성격, 언행, 음식의 기호나 적성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개인차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Rho, 1971).

이제마는 사단론(四端論)에서 '몸과 마음이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고 완전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희노애락의 성(性)과 정(情)의 두 요소의 차이에 의하여 야기되는 장부생리의 차이에 의하여 태·소·음·양인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람의 장부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 각 오장육부의 기능이 허하고 실함이 있어 이것으로 각각 체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심장을 중심으로 비, 폐, 간, 신의 네 장기의 기능이 상대적인 대소와 허실에 의하여 체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교신저자 이규은 E-mail : lke@home.kwandong.ac.kr)

** 청뇌한방병원

투고일 2002년 5월 20일 심사의회일 2002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02년 6월 29일

탕으로 사람을 네 가지 체질, 즉 태양인 : 폐대간소, 소양인 : 비대신소, 태음인 : 간대폐소, 소음인 : 신대비소로 나누어 질병의 치료방법과 식이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The Study Group of Oriental Medical Nursing, 1998). 또한 체질마다 체형이 있는 것처럼 체질마다 마음의 형이 있으며 이 차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사상의학에서는 性質才幹(재능, 소질, 장점 따위), 恒心(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心慾(심성을 다스리지 못해 너무 과도한 때 드러나는 욕심) 등으로 구분한다. 이 심성의 차이는 적성, 대인관계,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차이를 가져온다(Song, 1996). 이는 사상의학이 인간의 심리학적 차원과 신체적인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을 부분의 합이 아닌 전체로 보고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존재로 보는 전인적인 간호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체질의학은 종전의 의학이 모든 인간을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생기는 誤治나 약의 부작용을 일소하고 체질적 양생과 치료로 질병의 예방과 완전한 치료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Bae & Kim, 1998), 이는 간호에서 대상자를 독특한 존재로 파악하여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간호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 회복시켜 삶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경감하며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을 이해하고 간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 사상, 자연환경 등을 무시 할 수 없다. 즉 우리민족만이 가진 체질, 지리, 환경과 사회형태로서의 타민족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와 사회의 산물로서 사상이 전개되므로 전통사상 속에 담겨 있는 간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Shin, 1999). 이러한 간호학과 사상의학이 갖는 철학적 관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상의학의 특성과 간호학에서 중요한 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의학인 사상의학의 4체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 시도로서 대상자들의 체질을 분석하고 체질에 따른 특성을 밝히

며, A/B형 성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체질별 간호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형 성격은 경쟁적인 성취 추구,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참을 수 없음, 일에 대한 몰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성과 적개심을 갖게 되므로(Thomas, 1986), 심장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 발생의 요인으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어서 체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는 작업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상체질에 대한 간호학적 지식축적에 도움을 줄 것이고 체질에 따르는 간호 프로토콜 개발을 앞당기게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사상체질별 유형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A/B형 성격유형을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사상체질별 유형에 따른 제 특성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A/B형 성격유형에 따른 제 특성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6) 대상자의 사상체질별 유형과 A/B형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7) 대상자의 사상체질별 유형과 제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사상체질

이론적 정의 : 체질은 각 개인이 지니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특징을 합하여 일컫는 말로 사상의학에서는 인간의 체질적 유형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였고 각 체질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Wang, 1999).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에 의한 체질 분류를 의미한다.

2) A/B형 성격

이론적 정의 : A유형은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적인 행동 및 감정 반응상의 유형으로 A형 성격의 특성은 적대감, 공격성, 경쟁성, 시간 촉박성을 포함하는 행동-감정의 복합체이며 (Cho & Jeong, 2001). B유형은 A유형과 비교되는 사람으로서 A유형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적고 긴장된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억압된 갈등이 없고 따라서 시간에 대한 급박감, 적대감, 경쟁심이 심하지 않으며 완화적인 성격을 말한다 (Chang, 1983).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Eysenck와 Fulker(1983)의 도구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성격, 행동 영역의 점수를 평균하여 21점 이상이면 A형 성격, 11점 ~ 20점 이하이면 절충형 성격, 10점 이하이면 B형 성격이 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사상체질과 A/B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사상체질과 A/B 성격유형의 특성 및 관련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횡단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 113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3. 연구도구

1) 사상체질 측정도구

대상자의 체질을 감별하기 위하여 Kim, Ko & Song(1996)에 의해 개발된 121문항의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QSCC I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상체질 판정을 객관화하기 위한 설문지로서 도구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은 Cronbach' α .72 ~ .81 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 ~ .93이며 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성격 요인 검사와의 준거 타당도를 구한 결과 각 체질의 특징적인 영역별로 $r = .2138 \sim .4770$ ($P < .005 \sim .01$)의 상관관계가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체질을 감별할 수 있는 도구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에 응답하게 한 후 연구자 중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 C 한방병원에서 체질 분석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체질을 분류하였다.

2) A/ B형 성격

A/B 성격유형을 확인하는 도구는 다양하나 가장 많이 이용되어온 Jenkins, Zyzanski & Rosenman (1978)이 개발한 JAS(Jenkins 활동척도)는 질병의 주요예측인자인 분노-적대감 차원이 결여되어 있고, Bortner(1969)의 도구는 9문항으로 너무 단순하며, Matthews(1982)가 제안한 어투, 행동패턴, 생활양식을 파악하여 A유형을 판정하는 구조화된 면접은 지나치게 면접자의 주관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또한 A유형행동 양상 자체가 정상인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분류여서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A유형(true A type)을 구분하기 위해 A유형 행동 양상에 새로운 성격 차원을 추가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Friedman & Booth-Kewley, 1987; Min,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A형 성격을 4개 차원(Tenseness, Ambition, Activity, Unrepressed)으로 개발한 Eysenck와 Fulker(1983)의 도구와 A/B 성격유형을 처음으로 규명한 Friedman & Rosenman (1959)과 Booth-Kewley & Friedman(1987)의 연구도구 및 관련문헌들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A형을 성격과 행동의 두 영역에 걸쳐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 : 2점, 어느 정도 동의 : 1점, 전혀 동의 안 함 : 0점으로 표시한다. 성격과 행동

두 영역 각각 21점 이상이면 A형 성격과 행동, 평균 11점 ~ 20점 이하이면 절충형 성격과 행동, 평균 10점 이하이면 B형 성격과 행동이라고 하며 성격과 행동의 두 영역을 평균하여 21점 이상이면 A형 성격, 평균 11점 ~ 20점 이하이면 절충형 성격, 평균 10점 이하이면 B형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심리성향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98$ 이었으며, 행동성향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45$ 이었다.

3) 알콜 섭취량

술의 총 용량 100중 상온에서 몇 %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술의 도수이며 도수에 2를 곱한 수치를 표준도수라고 한다. 그러나 상용화된 술의 알콜 %가 그 술의 도수이긴 하지만 순수 알콜량은 알콜의 비중에 0.8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순수 알콜량은 도수의 80%가 된다(The Korean Academy Society for Prev Med, 199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평상시에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와 양을 기술하게 한 후 위에서 제시한 대로 순수 알콜량을 계산하였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02년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5주간 이었으며 연구보조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토록 하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한 뒤 회수하도록 하였다. 자료는 총 130부를 배부하여 119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6부를 제외하고 113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1차로 연구자중 1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사상체질 진단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체질을 판별 한 후 SPSS 10.0 for Window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상체질 분류, A/B형 성격과 행동은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상체질 분류와 A/B형 성격은 χ^2 - test,

ANOVA로,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사상체질분류 검사지(QSCCⅡ)의 체질판별 정확도는 약 70% 보고되어 있으므로 본 설문지의 분석 결과는 대상자의 실제 체질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Kim, Ko & Song, 1996). 아울러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의 연령은 30 ~ 59세 까지였으며 이 중에 39세 미만 46%, 50세 이상 11.5%로 분포하였다. 이 중 남성이 39.8%, 여성이 60.2%였으며 BMI에 의한 분류로는 정상체중군(BMI : 20 ~ 24.9) 66.4%, 과체중군(BMI : 25이상) 16.8%, 저체중군(BMI : 24.9이하), 15.9%로 나타났다. 1일 평균 흡연량은 11개피 이상 14.2%, 11개피 이하 0.7%였으며 78.8%가 비흡연자로 나타났다. 대상자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약 반수 정도(48.7%)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좋다" 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ears)	less than 39	51	45.1
	40 - 49	49	43.4
	more than 50	13	11.5
Gender	men	45	39.8
	women	68	60.2
BMI	less than 19.9	18	15.9
	20 - 24.9	76	67.3
	more than 25	19	16.8
Amount of smoking per 1 day	non smoker	89	78.8
	less than 10 cigarette	8	0.7
Perceived health state	more than 11cigarette	16	14.2
	good	43	38.0
	moderate	55	48.7
	poor	15	13.3

고 응답한 대상자가 38.0% “나쁘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3.3%이었다(Table 1 참조).

2. 사상체질에 의한 분류

대상자의 체질 가운데 태양인은 없었으며 태음인이 39.8%로 가장 많았고 소음인이 34.5%, 소양인이 25.7%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Table 2>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N=113)

classification	N	%
Taieum	45	39.8
Soyang - in	29	25.7
Soeum - in	39	34.5

3. A /B형 성격과 행동

대상자의 A /B형 성격을 분류해 본 결과 절충형 성격 72.6%, B형 성격 19.4%, A형 성격 8.0%로 나타났고 A /B형 행동을 분류해 본 결과 절충형 행

동 49.5%, B형 행동 47.8%, A형 행동 2.7%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Table 3> Type A / B Personality and behavior (N=113)

Variables	Categories	N	%
Personality	A type	9	8.0
	mixed type	82	72.6
	B type	22	19.4
Behavior	A type	3	2.7
	mixed type	56	49.5
	B type	54	47.8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상체질별 분류

BMI에 따른 사상체질별 분류를 검증한 결과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BM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4.542, P<.001), 알콜 섭취량에 있어서도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4.256, P<.018). 그러나 연령 및 성별, 1일 흡연량, 지각된 건강 상태에 따른 사상체질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4> Sasang constitutional type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113)

Characteristics	Sasang constitutional type			F	p
	Taieum - in Mean±S.D	Soyang - in Mean±S.D	Soeum - in Mean±S.D		
age	40.75± 7.15	40.38± 4.07	42.54± 8.01	1.043	.356
BMI	23.80± 2.34	21.90± 2.17	21.12± 2.12	14.542	.001
alcohol consumption	38.88±31.05	35.51±24.81	19.44±22.48	4.256	.018

<Table 5> χ^2 - test between Sasang constitutional typ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asang constitutional type			χ^2	p
	I N(%)	II N(%)	III N(%)		
Gender				.776	.678
men	20(17.7%)	10(8.8%)	15(13.3%)		
women	25(22.1%)	19(16.8%)	24(21.2%)		
Amount of smoking per 1day				.968	.915
non smoker	34(31.2%)	7(8.4%)	31(28.4%)		
less than 10 cigarette	3(2.8%)	1(0.9%)	3(2.8%)		
more than 10 cigarette	7(8.4%)	4(3.7%)	4(3.7%)		
Perceived health state				3.011	.556
good	15(13.6%)	13(11.8%)	14(12.7%)		
moderate	24(21.8%)	14(12.7%)	16(14.5%)		
poor	5(4.5%)	2(1.8%)	7(6.4%)		

I : Taieum - in II : Soyang - in III : Soeum - in

(Table 4, 5 참조).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A/B형 성격

BMI에 따른 A/B형 성격을 검증한 결과 A형 성격, 절충형 성격, B형 성격의 순으로 BM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3.3592, P<.032). 그러나 연령, 알콜 섭취량, 성별, 1일 흡연량, 지각된 건강 상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7 참조).

6. 사상체질과 A/B형 성격

사상체질과 A/B형 성격유형을 교차분석 한 결과 사상체질유형과 A/B형 성격유형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8 참조).

7. 변수간의 상관관계

연령, BMI, 1일 흡연량, 알콜 섭취량, 지각된 건강 상태, 사상체질별 분류, A/B형 성격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BMI와 1일 흡연량($\gamma = 2.74, P = .004$)간, BMI와 알콜 섭취량($\gamma = .303, P = .008$)간, BMI와 사상체질별 분류($\gamma = -.592, P = .0001$)간 및 BMI와 A/B형 성격($\gamma = .285, P = .011$)간, 1일 흡연량과 알콜 섭취량(γ

<Table 6> A/B Personality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113)

Characteristics	Personality type			F	p
	A type Mean±S.D	mixed type Mean±S.D	B type Mean±S.D		
age	39.00± 2.83	41.56± 6.93	41.52± 7.25	.129	.879
BMI	25.88± 4.00	22.61± 2.65	21.45± 2.25	3.592	.032
alcohol consumption	24.40±26.59	31.90±28.91	25.56±25.68	.358	.701

<Table 7> χ^2 - test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	Personality type			χ^2	p
	I N(%)	II N(%)	III N(%)		
Gender					
men	1(0.9%)	30(27.8%)	12(11.1%)	.184	.912
women	2(1.9%)	47(43.5%)	16(14.8%)		
Amount of smoking per 1day					
non smoker	2(1.9%)	59(56.2%)	23(21.9%)	1.413	.842
less than 10 cigarette		5(4.8%)	1(1.0%)		
more than 10 cigarette	1(1.0%)	10(9.5%)	4(3.8%)		
Perceived health state					
good	1(0.9%)	24(22.6%)	14(13.2%)	5.712	.222
moderate	2(1.9%)	39(36.8%)	12(11.3%)		
poor		13(12.3%)	1(0.9%)		

I : A type II : mixed type III : B type

<Table 8> χ^2 - test between Sasang constitutional type and personality type (N=113)

Sasang constitutional type	Personality type			χ^2	p
	A type N(%)	mixed type N(%)	B type N(%)		
Taieum - in	2(1.9%)	33(30.6%)	9(8.3%)	3.784	.436
Soyang - in		21(19.4%)	6(5.6%)		
Soeum - in	1(0.9%)	23(21.3%)	13(12.0%)		

<Table 9>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N=113)

	age	BMI	amount smoking per 1 day	alcohol consumption	perceived health state	Sasang constitutiona l type	type A/B personaliy
age	1.000 (.000)						
BMI	.176 (.065)	1.000 (.000)					
amount smoking per 1 day	.178 (.065)	.274** (.004)	1.000 (.000)				
alcohol consumption	.068 (.555)	.303** (.008)	.361** (.001)	1.000 (.000)			
perceived health state	.119 (.216)	.098 (.311)	.117 (.233)	-.148 (.209)	1.000 (.000)		
Sasang constitutional type	.098 (.375)	-.592*** (.000)	-.120 (.285)	-.306* (.019)	.065 (.562)	1.000 (.000)	
type A/B personality	-0.17 (.862)	.285* (.011)	.144 (.144)	-.039 (.736)	.246** (.011)	-.068 (.486)	1.000 (.000)

*P<.05 **P<.01 *** P< .001

=.361, P=.001)간, 알콜 섭취량과 사상체질별 분류($\gamma = -.306$, P=.019)간, 지각된 건강상태와 A/B형 성격($\gamma = .246$, P=.011)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Table 9 참조).

V. 논 의

본 연구는 사상체질과 A/B형 성격에 관한 연구로 그간 한국간호가 서구문화에 뿌리를 둔 간호에서 성장, 발달해오고 서구에서 개발된 간호중재만을 고집하면서 양적인 발전인 해은 점을 반성하면서 우리의 전통의식에 기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도하였다.

사상의학은 체질의 분류 및 체질에 따른 병증의 차이를 규명하고 선천적인 체질의 특성에 따라 질병 치료, 양생법, 일상의 언행과 마음가짐까지 다스리게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간학으로 볼 수 있다(Park, Park & Choi, 1999).

본 연구대상자의 사상체질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태음인 39.8%, 소음인 34.5%, 소양인 25.7%로 나타났다. 이는 동의수세보원(Lee, 1986)에 기재된 사상체질인의 분포에서

성별에는 차이가 없으나 인구 1만 명 당 태음체질은 3 ~ 4명, 태음체질 5000명, 소양체질 3000명, 소음체질 2000명이라는 통계적 개념으로 제시한 것과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Kim(1999)의 연구에서도 태음인 50%, 소양인 30%, 소음인 20%로 나타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알콜리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대상자를 조사한 Kim, Kim과 Hwang(1992)의 연구에서는 태음인 41.9%, 소음인 37.2%, 소양인 20.9%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 Kim, 1998)에서는 소양인 73.2%, 태음인 17%, 소음인 9.8%로 나타나 소양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2001)의 연구에서도 태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40%로 나타났고 소음인의 비율이 17.1%로 나타나 소양인 비율이 비교적 높게 제시된 바 있어 연구대상자에 따라 사상체질별 분포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에게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던 체질인 태음인의 외형상 특징을 살펴보면 허리부위가 성장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나 목덜미가 기세는 약하며 대개는 키가 크고 살이 쪼으며 체격이 건실하다. 간혹 수척한 사람도 있으나 골격만은 건실하

다(Moon & Jung, 1996)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태음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런 점이 태음인의 외형상 특징과 관련 있는 듯하다. 또한 Kim (200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체질량지수가 태음인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제시하였고, Kim과 Kim(1999)의 연구에서도 비만인의 경우 태음인 비율이 81.2%를 나타낸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제시한 태음인의 유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음인에게서 비만인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사상의학적인 이론에 의한 설명으로는 태음인이 간대폐소한 장부형국인데 폐의 호산지력(呼散之力)이 약해질수록 간과 소장(小腸)의 흡취지력(吸取之力)이 강력해져서 수곡(水穀)의 온기가 상승하여 이루어지는 진해(津海)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수곡(水穀)의 냉기가 하강하여 이루어지는 유해(油海)와 혈해(血海)의 탁재(濁滓)로 생성되는 기육의 양이 늘어나면 그것이 곧 비만이 되는 것이다(Lee, Jeon & Kim, 1996)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태음인에게서 알콜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2001)의 연구에서도 태음인의 알콜 섭취량이 가장 높았다고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태음인의 장부가 간대폐소하여 알콜 섭취 및 해독능력이 다른 체질보다 좋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들의 A/B형 성격정도는 A형 성격, 8.0%, 절충형 성격 72.6%, B형 성격 19.4%로 나타났는데 반해 A형 행동 2.7%, 절충형 행동 49.5%, B형 행동 47.8%로 A형 성격의 일부가 절충형 행동으로 절충형 성격의 일부가 B형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각이 행동화 될 때에는 좀 더 느긋하고, 덜 경쟁적이고, 참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A형 행동은 1950년 후반 Friedman과 Rosenman(1959)이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행동과 특징들을 관찰한 후에 다

른 질환자들과 구별이 되는 행동적 특징을 발견하고 이것을 A형 행동양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A형이란 일반적으로 강한 성취추구를 나타내며 늘 시간의 조급함을 나타내고 서두르고 잘 참지 못하며 경쟁적이고 쉽게 화내며 적개심을 발하는 행동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적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를 억누른 채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자신은 덜 느낄지 모르나 실제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어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훨씬 높다.

Jenkins(1976)과 Matthews(1982)는 A형 행동양상을 높은 성취추구, 경쟁심, 만능적인 시간 압박감, 적개심과 공격성, 참지 못함, 직업에 너무 헌신적인 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행위의 복합체라 하였다. 이에 반해 B형 성격은 A형 성격에 비해 관상심장병의 위험이 적고 긴장된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억압된 갈등이 없고 따라서 시간에 대한 급박감, 적대감, 경쟁심이 심하지 않으며 완화적이다(Friedman & Rosenman, 1974). Eysenck와 Fulker(1983)은 기존의 A형 행동패턴을 요인분석하여 긴장감(tenseness), 야망(ambition), 활동성(activity), 그리고 표출(unrepressed)이라는 네 개의 하위요인을 찾아내었고 이 중에서 긴장감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A형 행동패턴의 하위요인들 중 야망, 활동성 그리고 표출은 외향성(extraversion)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야망, 활동성 그리고 경쟁과 성취지향 같은 A형의 행동들은 대표적인 외향성의 행동특성들로 외향성의 기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Innes(1980)는 충동성과 A형 행동패턴간의 관계성을 제시하면서 A형과 B형간에는 우울과 불안 척도가 아닌 공격, 자율, 능동성을 포함한 심리적 척도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신병적 경향성의 한 측면인 적대감, 공격성과 함께 다른 한 측면인 충동성에 의해 적대감, 분노, 성급함 그리고 참을성 부족의 A형 행동패턴의 전형적인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의 A형 행동의 특성들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을 확인 할 목적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상체질별 특성과 A/B

성격유형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상체질과 A/B형 성격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소음인의 경우 B형 성격을 나타내는 빈도수가 많았다. Song(1996)은 소음인의 성격특성으로 “집안으로 돌아와 있으려고만 하고 밖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곧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이다. 여성적이고 자 하고 남성적이고자 하지 않는다. 곧 적극성이 적고 추진력이 약하다. 그러나 생각이 치밀하고 침착하다. 잠시 감정에 휩싸이는 일은 있지만, 계속 감정적으로 치달지는 않는다. 소음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리 작은 구석까지 살펴 계획을 하므로 그러한 재간이 나온다” 라고 기술하고 있었다. Park과 Lee (1998)는 사상체질과 응의 심리학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소음인이 내향성 감각형, 내향성 사고형, 내향성 감정형 등을 나타내어 강한 내향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Park(2000)도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음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외향성을 보였으며 충동하위요인은 소음인이 태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 자신들의 욕구를 잘 조절하며 욕구좌절의 상황에서도 잘 참고 견딘다고 하였다. 또한 소음인은 신중하며 리더로 나서기보다는 뒤에 있기를 좋아한다. 게으른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틸을 원하지 않고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생활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Eysenck와 Fulker(1983)가 제시한 A형 성격과 외향성과의 연관성, Innes(1980)가 제시한 A형 성격과 충동성간의 문제와 대비되는 B형 성격의 내향성, 조절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소음인의 성격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많은 대상자에게 반복 연구해 사상체질의 4체질과 A/B형 성격간의 일치하는 측면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사상체질의 4체질간에는 분명한 특성이 있고 이 체질의 특성과 여러 심리적 척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전통의학인 사상체질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을 위해 많은 간호사들의 지속적

인 관심과 체질에 따른 간호 프로토콜 개발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상체질의 4체질과 A/B형 성격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체질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A/B형 성격간의 연관성을 밝혀 사상 의학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02년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5주간 K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으며 130부의 설문지 중 113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사상체질분류검사지 121문항, A/B형 성격 30문항 등 총 157문항 이었다. 자료분석은 사상체질진단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체질을 판별한 후 SPSS 10.0 for Window 프로그램에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χ^2 검정, ANOVA검정 및 Pearson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 중 태음인은 39.8%, 소음인은 34.5%, 소양인은 25.7%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A/B형 성격을 분류해 본 결과 절충형 성격 72.6%, B형 성격 19.4%, A형 성격 8.0%로 나타났고 A/B형 행동은 절충형 성격 49.56%, B형 성격 47.8%, A형 성격 2.7%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상체질별 분류를 검증한 결과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BM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4.542$, $P<.001$), 알콜 섭취량에 있어서도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256$, $P<.018$).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A/B형 성격을 검증한 결과 A형 성격, 절충형 성격, B형 성격의 순으로 BM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592$, $P<.032$).
5. BMI와 1일 흡연량($r=2.74$, $P<.004$)간, BMI

와 알콜 섭취량($\gamma = .303, P < .008$)간, BMI와 사상체질별 분류($\gamma = -.592, P < .0001$)간, BMI와 A/B형 성격($\gamma = .285, P < .011$)간, 1일 흡연량과 알콜 섭취량($\gamma = .361, P < .001$)간, 알콜 섭취량과 사상체질별 분류($\gamma = -.306, P < .019$)간, 지각된 건강상태와 A/B형 성격($\gamma = .246, P < .011$)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사상체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못한 제 변수와의 탐색이 요구된다.
2. 사상체질별 분류에 따른 체질별 간호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이 시급하다.
3. 사상체질과 관련된 종단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한 국민 체질에 적합한 건강관리체계 모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Bae, M. Y., & Kim, S. H. (1998).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asang Constitutional Type*. Oriental Medical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Booth-Kewley, S., & Friedman, H. S. (1987). Psychological predictor of heart disease : A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1*, 343-362.

Bortner, R. W. (1969). A short rating scale as a potential measure of pattern A behavior. *J of Chronic Dis, 22*, 87-91.

Chang, S. K. (1983). *A-B Personality Type, Preknowledge of Stressor and Stress Streng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Cho, M. K., & Jeong, H. S. (2001).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ress,

Ways of Coping and Type A/B Personality of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7*(2), 183-191.

Eysenck, H. J., & Fulker, D. (1983). The component of Type A behavior and its genetic determina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 499-505.

Friedman, M. D., & Rosenman, R. H. (1959). Association of Specific Overt Behavior Pattern with Blood and Cardiovascular findings. *JAMA, 169*(12), 996-1006.

Friedman, M., & Rosenman, R. H. (1974).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Alfred A. Knopf, New York.

Hwang, I. C. (1999). *Will the clock of history stop in a frontier ages?* Seoul : Creation and Criticism Publishing.

Innes, J. M. (1980). Impulsivity and the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Report, 47*, 976-978.

Jenkins, C. D. (1976). Recent evidence supporting psychological and social risk factors for disease. *NEW England J of Med, 294*, 987-994, 1033-1038.

Jenkins, C. D., Zyzanski, S. J., & Rosenman, R. H. (1978). *Jenkins Activity Survey*.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New York.

Kim, E. Y., & Kim, J. W. (1999).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ife Style of Obese patlents and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 Med, 8*(2), 219-235.

Kim, J. W., Kim, J. H., & Hwang, E. W. (1992). Clinical Study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colic Patients - with MMPI & Sasang Constitution.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3*(2), 65-85.

Kim, S. H., Ko, B. H., & Song, I. B.

- (1996). The Standardization Study of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II). *J of Const Med*, 8(1), 187-246.
- Kim, Y. K. (2001).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food habits, nutrients intake and the diseas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ged over 65 years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Y. W., & Kim, J. W. (1999). The study in objectification of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past Questionnaires). *J of Const Med*, 11(2), 151-183.
- Lee, G. J., Jeon, B. H., & Kim, K. Y. (1996). Effects of Taeyumjoweeatang on the obesity of mouse and induced adipocyte 3T3-L1. *J of Sasang Const Med*, 8(2), 219-238.
- Lee, J. M. (1986). *DongEuiSuSeBoWon*. Seoul : Haenglim Publishing.
- Lee, J. M. (1992). *The Principle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Seoul : Haenglim Publishing.
- Lee, S. Y., & Kim, D. R. (1998).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Longevity and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0(1), 295-309.
- Matthews, K. A. (1982).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Bulletin*, 9, 293-323.
- Min, B. B. (1989). Correlation between CHD and personality. *The Korean Academy of Clinical Psychology*, 8, 16-33.
- Moon, H. J., & Jung, S. J. (1996). Nursing Approache of Four constitutional Theory. *J Korea Community Health-Nursing Academic Society*, 10(1), 139-154.
- Park, H. I. (2000). An Analysis of Jung's Psychological Types, Sasang Constitutions and the Personality Traits of Undergraduates and Comparisons of the Three. *Shim-Song Yon-Gu*, 15(2), 87-177.
- Park, H. G., & Lee, J. H. (1998).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 G. Jung's Psychological Types. *J of Sasang Const Med*, 10(2), 41-50.
- Park, S. S., Park, E. K., & Choi, J. Y. (1999). The Consistency Study of the Judgement of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Questionnaire. *J of Const Med*, 11(1), 103-117.
- Park, Y. B., & Kim, T. H. (1986). *Diagnostics of Oriental Medicine II: The nature of a disease*. Seoul : Sungbo Publishing.
- Rho, J. W. (1971). *An Introduction to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Dept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Song, I. B. (1996). *Easily understandable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Seoul : Sasang Publishing.
- Shin, K. R. (1999). The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Alternative.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403-1418.
- The Korean Academy Society of Preventive Medicine (1993). *The Standardization Study of Data collection and Measurement for Health statistics*.
- The Study Group of Oriental Medical Nursing (1998). *Oriental Medical Nursing for University Students*. Seoul : HyunMoon, Publishing.
- Thomas, S. P. (1986). A descriptive profile of Type B personality. *J of Nurs Scholarship*, 18, 4-7.

Wang, M. J. (1999). *A Study on regimen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Oriental medical nursing: an Approach by the Q-meth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Abstract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and Type A/B Personality in Kangwon Province

Lee, Kyu-Eun* · Kim, Nam-Sun*
Ryu, Jae-Gy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type A/B personality.

Method: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13 Korean adults living in Kangwon Province,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0 to April 13, 2002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were QCSS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by Kim et al.(1996), and the Revised Type A/B personality by Eysenck & Fulker(1983).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 10.0 for Windows program using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Of 113 Korean adults, the portion who were Taieum-in, Soeum-in, Soyang-in was

39.8%, 34.5%, 25.7% respectively.

2. For type A/B personality, mixed type was most common, 19.4% of the participants were of type B and 8.0%, type A.

3. For type A/B behavior, mixed type was most common at 47.8% and type A was 2.7%.

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type according to BMI ($F=14.542$, $P<.001$), and alcohol consumption ($F=4.256$, $P<.018$).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ype A/B personality and BMI ($F=3.592$, $P<.032$).

6. The data shows correlations between BMI and amount smoked per day ($r=2.74$, $P<.004$), between BMI and alcohol consumption ($r=-.303$, $P<.008$), between BMI and Sasang constitutional type ($r=-.592$, $P<.0001$), between BMI and type A/B personality ($r=.285$, $P<.011$), between amount smoked per day and alcohol consumption ($r=-.361$, $P<.001$),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Sasang constitutional type ($r=-.306$, $P<.019$),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e and type A/A personality ($r=.246$, $P<.011$).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 to understand the Sasang constitution for the discipline of Nursing and for nurses to prepare nursing protocols relevant to Sasang constitutional care. Also, Sasang constitution has to be considered in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A/B personality type

* Kwando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 Chung Noi Oriental Medical Hospital